

SFC, 화이바이오메드 하이드로젤 기술이전 완료

팩스넷뉴스 | 2018.12.20 09:03

[팩스넷뉴스 김세연 기자] 에스에프씨(SFC)는 화이바이오메드가 보유 중인 자기조립형 하이드로젤 기술이전을 완료하고 세포치료제 기능 강화 연구 개발에 본격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1월 화이바이오메드와 체결한 세포치료제 기능 강화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협약의 후속 조치다.

하이드로젤(hydrogel)은 생체 조직과 유사한 물성으로 약물 전달 및 조직공학 분야에서 유용한 생체 재료다. 인공장기나 약물 전달체 등 의료분야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등 미래 유망 산업 분야로 꼽히며 세계적인 연구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에스에프씨(종목홈)가 기술 이전받은 화이바이오메드의 자기조립형 하이드로젤은 체내에 주입된 세포 치료제가 인체의 면역시스템으로부터 제거되는 것을 방지한다. 세포에서 분비되는 유효 성분이 지속적으로 방출될 수 있는 약효 지속 효과(Long Term Acting)를 보이고 있다. 동물실험에서도 줄기세포를 단독 주입할 때 보다 약 5배 이상 세포가 유지되는 것으로 입증됐다.

에스에프씨 관계자는 하이드로젤 기술을 이용해 세포치료제 주변 분비작용(파라크라인 효과)의 지속이 가능하다고 하며 “현재 연구개발을 진행 중인 항암 면역세포치료제, 퇴행성 뇌·신경계 질환 치료제, 근골격계 질환 치료제의 효과를 높이는 ‘세포 지지체’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세연 기자 ehous@paxnetnews.com

<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팩스넷뉴스 무단전재 배포금지 >